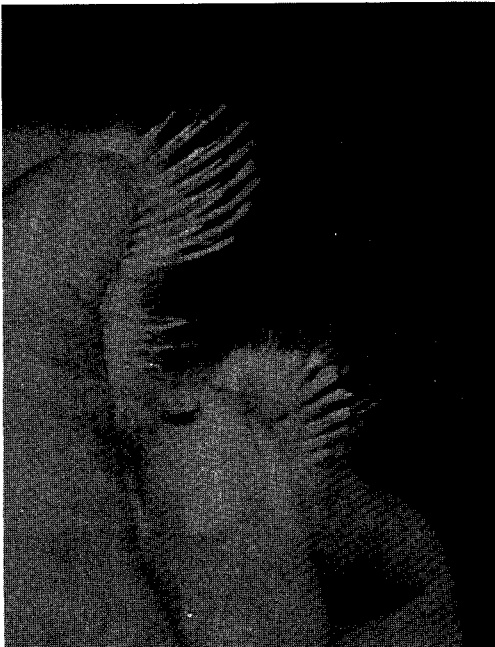


육계 감별사육의 이점

본지는 근착외지를 통하여 동남
아시아에서의 암수감별 사육과 개선
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편집자 註)



육 계 병아리를 암수감별하여 서로 다른 계사에서 사육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암수 분리 사육함으로써 얻어지는 사료의 절감, 보다 나은 현금수익, 균일한 체중유지 등의 이점은 육계경영상 충분히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육계병아리를 1일령부터 암수분리 사육후 출하하는 방법은 병아리와 육계업자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효과적인 경영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주사육경비에 따른 이득

암수감별사육에 있어서 주사육경비에 따른 이득은 암수병아리의 영양소요구량, 발육 특성 등의 차이에 기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수컷의 경우는 암컷의 경우보다 오랜동안 높은 수준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며, 암컷은 수컷의 약 반 정도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 암컷은 보다 적은 아미노산을 필요로 한다.

암수감별사육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양계획에서는 영양소요구량에 보다 가까이 근접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값비싼 단백질과 사료대체에 따른 사양경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단일 사료용(Straight-run broiles crops)으로 만들어진 절충식 사료배합방법은 수컷의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암컷의 요구량을 증대시킨다.

일반적으로 사료에 단백질함량이 2~4% 정도 낮은 후기사료는 암컷에 먼저 급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역시 암컷이 낮은 영양소를 함

유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보다 잘 사육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험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양질의 원료를 단기간 공급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가의 단백질사료 급원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보다 많은 양을 급여할 필요가 있는 사료 급여성분은 일반 사료공장에서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으며 후기사료를 단기간 제조 급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사육자의 실수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안고 있는데, 이런 위험은 사료를 사료통으로 옮길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언제 닥쳐올른지 모른다. 이 밖에 사료가 항상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육계의 상품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료가격절감이 바로 단백질과 에너지의 제한급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네랄과 비타민 수준은 암수의 요구량이 다른데, 수컷은 많은 칼슘과 인을 필요로 하며 비타민A와 리보플라빈, 비타민E 등 비타민류 결핍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타민류와 미량광물질의 낮은 함량도 역시 사료가격 절감에 기여한다.

암수분리사육의 두번째 이점은 체중을 균일화할 수 있다는데 있다. 어느 주어진 일령에서 수컷은 암컷보다 20% 정도 무겁고 도살 체중에 이르는 시간이 서로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체격과 체중의 균일화

육계체중이 균일치 못하면 도계시 문제가 된다. 육계의 체격과 체중의 균일화는 도계시설의 현대화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대부분의 도계장비가 변수에 따라 융통성있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각 도계공정에서 보다 정확히 작업을 진행하고 육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

계의 균일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상품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동남아 각국에서도 육계를 절단, 부분육 생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확한 규격 조절이 가격절감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정확한 도표로 된 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도표에 의해서 주어진 일령시의 암수 병아리의 체중을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와 육계체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도계시기를 추정하여 육계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육계 암컷의 초기사육

암수감별사육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경우 암컷을 수컷보다 먼저 출하할 수 있으며, 도계과정에서 제거되는 불필요한 복강내 지방의 과도한 침적을 막을 수 있다. 육계 암컷의 경우 사육초기에 복강내 지방이 침적되기 시작하는데 같은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시켰을 경우 7~8주령의 육계에서 수컷보다 암컷의 복강내 지방이 3배 정도 많이 침적됨을 볼 수 있다.

암수분리사육을 실시할 예정이면 육계를 1일령시에 암수를 감별 분리시켜야 한다. 재래적인 암수감별방법인 항문감별은 속도가 느리고 숙련된 감별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구나 이 방법은 병아리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도태되는 병아리수가 증가하여 사육초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육계병아리의 계통에 따른 깃털을 이용한 암수감별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이 모든 병아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컷의 경우 주익우모(primary wing feather)가 부익우모(covert wing feather)와 같거나 짧지만, 암컷은 주익우모가 길다. 이 깃털감별은 단기간의 연습을 통해서 쉽게 그 기술을 습

특할 수 있으며, 숙련되면 1시간에 1,500~2,000수의 병아리를 정확히 감별해 낼 수 있다. 병아리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신속히 감별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감별방법에서 야기되는 시간 지연에 따른 병아리의 탈수와 특별한 관리없이도 육추사료 병아리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컷의 깃털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발현이 늦기 때문에 수컷의 깃털이 자라는 속도가 더디며, 시간이 갈수록 암컷과 달라진다. 이런 방법으로 성감별을 신속히 함으로써 사료절감효과와 시간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깃털이 약해져 육계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은 빛의 강도 또는 부화온도를 조절하거나 부리절단 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들은 아직 실용화되고 있지 못하다.

암수분리사육 프로그램

육계의 암수분리사육은 육계산업의 사업계획에 복잡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육계가 부화된 후 5일령에 비슷한 육추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시간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여기에 부가되어 서로 다른 계사의 설비가 필요하고 육계사육 주기의 시간차 때문에 육계를 반입·출하하는 회전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육계를 암수분리하여 서로 다른 계사에서 사육관리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로스터용 육계 또는 포장육 등 상품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하여 실제 육계사육에 적용되고 있다. 사료절감과 자금회전, 균일한 체중 등은 육계업자들의 관심거리이다.■

닭의 호흡기질병, 뼈다리병의 특수처방제

스타신 STARCIN

- 씨알디, 코라이자, 뼈다리병의 예방·치료에 높은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입추 3일간, 2주후 3일간, 3주후 3일간 급여하여 성공적인 육추를 할 수 있습니다.

약은 많지만 선택이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대보동물약품/DAEBO VETCHEM LTD.**

본사·공장 : 서울 성동구 화양동 167-92
전화 464-3134, 464-5559